

류젠지 갯도

지금부터 들어갈 갯도는 이와미 은광에서 발견된 1,000 개에 가까운 채굴 갯도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갯도 중 하나입니다. 류젠지 갯도는 1715년 도쿠가와 막부가 직접 관리한 갯도로 개설되어 2세기 동안 대관소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그 사이 여러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총 길이는 600미터에 육박하며, 현재는 처음 177미터를 견학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채굴된 은은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막부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당시의 갯도는 끌과 망치를 사용하여 광부들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에 불과했습니다. 은광맥을 따라 파낸 메인 갯도에서 갈라져 나온 수많은 갯도들은 광부들이 매우 좁은 환경에서 일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메인 갯도는 19세기 후반에 현대식 굴착기를 이용해 광차도 다닐 수 있도록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배수하고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100m 깊이의 수직 갯도도 있습니다.

류젠지 갯도의 채굴은 오래 전에 중단되었으나, 이곳에는 여전히 많은 은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뱀고사리의 존재입니다. 양치류로 아치형 잎을 가진 밝은 녹색 식물이며,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